

[주간케인03] 20.09 점유소유 지문 학습지

[주간케인]은 지문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우리 한 문장, 문단씩 같이 봅시다. 수업이라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01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몇 가지 정해놓고 볼 겁니다.

1. 문장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는 그때그때 정리합시다.

2. 맥을 못 잡았다면, 문단이 끝났을 때 몇 초만이라도 투자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 끊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PIRAM뺨께 배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겁니다.)

3. **우린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는 머리 속에 박을 겁니다.**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상식적인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시험장에선 뭐든지 해야죠. 제가 말한 게 배경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아직 조금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늘게 돼있거든요. 정말 무리하지 않은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사실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은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떼내는 것은 모순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상식' 수준입니다

5. **반응합시다.**

그리고 하나, 번외로 추가합니다

선택과 집중

할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따가 해설에서 한 번 같이 봅시다.

02

제 수업의 특징은 지문 내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한계를 최대한 넓혀주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숨겨진 전제, 구조 등을 눈치챌 수 있게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그 운이 실현되는 빈도가 꽤 많이 높아질 겁니다.(물론, 실전적인 측면도 철저히 챙기며 공부합니다.)

각 문단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내포된 답도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철저히 독서 공부의 측면에서 쓰셔야 합니다.

● 학습지 이용 예시

#01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탄수화물
섬유소 ↔ 비섬유소
두 종류에 한 종류가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사람의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
C ⇒ D
C ⇒ D
비섬유소 - 녹말 → 소장 → 포도당
복잡한 분자... 그래서 들어가서 작게 이해할 것!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Q.01)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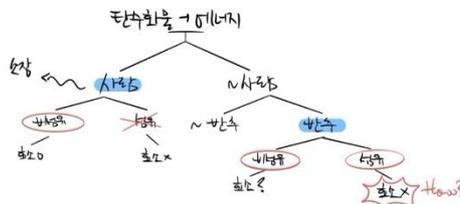
However...
영양사상으로도 비인간은 위이보나 단계에
바른음식을 먹은 다음에!

(-)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그럼 인간은 죽은
고양이에 영양분을 얻는 건가?

그럼 어떻게? How?
↓
앞으로 전개될 내용!

→ 첫 문단과 함께 정반대로 ↑



Q.01 여기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특성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체를 찾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는 작용하는 대상이 특정된다.

Q.02 위의 문단에선 비섬유소와 섬유소의 예시를 각각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문단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할 때 각 예시를 섬유소/비섬유소로 대신하여 언급할 것이다.

#0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Q.01 첫 문단부터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왜 불친절하다고 느꼈나요?

#02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Q.01 [02:01]이 내포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눈치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Q.02 '동산'이란 단어는 좀 낯선 단어입니다. 이미 한 번 지문을 읽으셨을 테니 본인이 이해한 대로 '동산'이라는 단어를 뜯어서 분석해 주세요.

Q.03 [02:06]에서 이항대립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찾아서 서술해 주세요.

#03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가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Q.01 [03:01]과 [03:03]에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짚어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름의 방안을 세워주세요.

Q.02 [03:03]이 본인에게 낮설게 다가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낮설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Q.03 [03:03]에서 직접점유일 때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Q.04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시험장에선 이해하느라 벅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흐름을 챙길 수 있을까요? 또, 이 문단의 구조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04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Q.01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선의취득'. 뭔가 되게 있어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단어에 쓰인 한자를 분석해서 무슨 뜻인지 유추해보세요.

#05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Q.01 ㉠ ㉡ 둘의 공통점은 뭔가요?